

순천·여수·해남·영암 전 주민에 재난지원금

전남 시·군 속속 보편 지급 결정
설 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광주시 등 지자체 지원책 준비 중

순천·여수·해남·영암 등 전남 지역 4개 시·군에 설(2월 12일) 이전에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黨政)이 보편적 지급이나,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전남지역 기초단체가 “코로나 19로 힘든 것은 모든 주민이 마찬가지”라는 기조 아래 잇따라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방침을 세우고 지급 준비에 나서 주목된다.

17일 전남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된 전남 기초단체는 모두 4곳으로 파악됐다. 순천시·해남군·영암군은 주민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곳은 순천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14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다행히 전국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고 있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13일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순천시민으로,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총 소요액 285억원은 지난해 각종 행사와 축제예산 등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했다. 허 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역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순천시 외에도 해남군·영암군이 주민들에게 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수립했으며, 조만간 주민들에게 지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수시의 경우 모든 시민에게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수시에 따르면 권오봉 시장은 18일 오전 시의회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간부회의를 열어 시민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소요 예산은 7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여수시와 시의회는 원포인트 추경을 열어 예산을 마련한 뒤 설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장흥군도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 방식 등을 놓고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일선 기초단체가 잇따라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방침을 세우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 간 제기되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당정과 다른 광역단체 움직임에 주시하면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주민 지원대책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지역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이 걸림돌”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지역민의 피해가 가중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순천·여수·김은중·김창화 기자 ejkim@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온·오프라인 병행

오늘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10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권 5년 차 국정 방향을 설명한다. 문 대통령은 회견 전날인 1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각 분야 이슈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기자회견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여파 속에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참석 기자의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게 된다. 처

음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청와대 실무진도 네 차례에 걸쳐 리허설을 하는 등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회견은 사전 각본 없이 문 대통령과 기자들이 방역·사회 분야, 정치·경제 분야, 외교·안보 분야로 나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에 관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문 대통령의 답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국정지지를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경제회복 방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등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각종 현안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답변보다는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가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17일 마을 주민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영암군 도포면의 한 마을 입구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 팻말이 세워져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요양병원·전남 사찰 코로나19 확산

주말·휴일 확진자 40명 육박...거리두기 2단계 유지·카페 종교활동 완화

광주지역 요양병원과 전남 사찰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세가 확산하고 있다. 주말과 휴일에만 4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카페 이용과 종교활동 등이 완화됨에 따라 개인별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관련기사 2·6면>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선 이날 오후 6시 기준 모두 9명(광주 1434~1442번)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442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5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감염된 n차 감염 사례다. 가족이거나 지인, 직장 동료 등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확진자 2명(광주 1437~1438번)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광주 1426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지표환자인 광주 1426번 관련 확진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전남 654번 확진자와 지인인 광주 1436번 확진자의 경우 가족 2명이 광주 남구 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확진자의 가족은 물론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확진자의 가족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진단 검사는 진행 중이다. 전남지역 확진자와 각각 접촉한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에선 주말인 지난 16일에도 15명(1419~1433번)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중 8명은 감염경로가 효정요양병원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효정요양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146명으로 늘었다. 의료진은 물론 종사자, 환자, 가족 등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병원 관련 확진자도 2명 추가되면서 누적 14명이 됐다.

안정세를 보이던 전남도 확산세로 돌아섰다. 지

난 3일부터 11일 연속한 자릿수 확진자를 보였으나 14일부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터져 나오면서 확진자 규모가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확진자 증가 배경에는 종단 소속 여부가 불분명한 '개인 사찰'을 매개로 감염자가 속출하고 지역별 산발적 감염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최근 나흘 사이 영암군 삼호읍 관음사와 강진 덕흥사 관련 확진자만 무려 24명에 이를 정도로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16일 도민 호소문을 내고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적 모임을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코로나 대 유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했다.

전남 방역당국은 서울 금천구 370번 확진자로부터 지역 내 사찰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영암 관음사 스님(전남 629번)의 오후로 알려진 서울 금천구 370번 환자가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관음사에 머물면서 스님과 신도, 흥덕사 스님을 연쇄 감염시킨 이후 마을 등 지역사회로 번져나갔다는 것이다. 영암 도포면 등 집단 감염이 터져 나온 마을 곳곳은 마을간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코로나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순천(11명), 나주(3명), 영광(2명), 화순·진도(각 1명)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남 누적 확진자는 660명으로 늘었다.

한편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광주와 전남지역도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된다. 다만 포장,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전 5시부터 밤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가능해졌으며, 사우나와 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도 해제됐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해 좌석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 광주·전남에 2~5cm 눈 내린다

18일 광주·전남지역에 최대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북부에는 1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눈이 오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광주·전남북부 2~5cm이며, 전남서해안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8일은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 아침 기온 영하 6도~0

도, 낮 기온 6~8도 분포를 보이겠지만, 19일 기온이 다시 떨어져 아침기온은 영하 10도~영하 4도로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 차량운행시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weeks
고함 고함! 2주간 눈가림
효과 2배 향상! 2주간 눈가림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연령 2019.08.16~10.17 기준) | 광주시 남구 남부동 100-1번지 |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